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권 4호 (2019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발행인 :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93 진빌딩 2층
전 화 : 02-336-6672

인쇄일 : 2019년 12월 15일
발행일 : 2019년 12월 15일
제작처 : 책과공간
(02-725-9371)

편집위원장 :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편집위원 : 강연욱(한림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혜리(충북대학교) 노수림(충남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송주현(California State University) 송현주(연세대학교) 신희영(전북대학교)
유연옥(계명대학교) 최유정(Harvard University)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심사위원 : 강호신(경성대학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기연(중앙대학교) 김연수(전주대학교)
남미경(인간발달복지연구소)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동기(한림대학교) 서미정(제주대학교)
설경옥(이화여자대학교) 설현수(중앙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손은정(계명대학교)
양수진(이화여자대학교) 양재원(가톨릭대학교) 윤진영(세명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종구(대구대학교) 장은영(호남대학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장희순(용인대학교)
정윤경(가톨릭대학교) 조설애(부산대학교) 하정희(한양대학교) 한세영(이화여자대학교)
한소원(서울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32, No. 4

November 15,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Editor : Seung-yeon Lee(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Yeonwook Kang(Hallym Univeristy) Giyeon Kim(Chung-Ang University)
Hei-Rhee Ghim(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o Rim Noh(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ijung Seo(Jeju National University) Ju-Hyun Song(California State University)
Hyun-joo Song(Yonsei University) Huiyoung Sh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Younoak Yu(Keimyung University) Youjung Choi(Harvard University)
Sae-Young Han(Ewha Womans University)
Daniel Choe(UC Irvine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32 권 제 4 호 / 2019. 12.

한국 아동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심리, 사회환경, 어머니 양육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김원경, 권희경 / 1
주관적 인지저하 노인들의 기억의 긍정성 효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와의 비교	이현호, 강연욱 / 21
학령 후기 자녀가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신체자존감 간의 관계에서: 모-자녀 의사소통 문제의 매개효과와 및 모 심리적 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설경옥, 장지혜, 신지윤, 하소정, 김서영 / 43
분노 정서조절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령차 및 개인차: 노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비교	강효신, 권정혜 / 59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 83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청년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녀의 자율성 욕구와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이인영, 정영숙 / 103
청소년 성격평가질문지(PAI-A) 증보판의 요인구조: 일반 및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손현진, 박은영, 홍상황 / 123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과 회복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이지현, 양수진 / 151

한국발달심리학회

성인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종단연구

Received: October 15, 2019
Revised: November 13, 2019
Accepted: November 23, 2019

김현지, 이지현, 권혜중,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A Longitudinal Analysis of Young Adult Women's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s Cosmetic Surgery

E-MAIL:
koseol@ewha.ac.kr

Heonji Kim, Ji-hyeon Lee, Hye-joong Kwon, Kyoung Ok Seol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Copyright 2019.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우리나라의 성형에 대한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는 연구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성형이나 외모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성형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가치 변인의 종단적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그리고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는 서로를 양방향으로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때 물질주의의 증가는 외모주의의 증가를 통해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를 예측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18-31세 성인 초기 여성 452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세 번의 설문을 실시하였고,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으로 종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수용태도는 18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물질주의 증가는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를 예측하였고, 외모주의 증가는 성형수용태도와 물질주의의 증가를 예측했다. 또한 물질주의 증가는 외모주의의 증가를 매개로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물질주의와 외모주의의 가치 변인으로 성인초기 여성들의 성형에 대한 높은 관심을 설명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물질주의, 외모주의, 성형태도, 성인초기 여성, 종단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성형 1위 국가로(ISAPA, 2015) 성형에 대한 높은 인기에 비해 성형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성형태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변인이나 신체감시나 사회비교, 그리고 외모귀인과 같은 인지적 변인(김현숙, 2014; 손은정, 2012)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지, 정서, 동기를 예측하는 포괄적 변인인 가치 변인중 성형수용태도와 관련 있는 물질주의 그리고 외모주의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가치는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 태도,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한다(Bardi, Calogero, & Mullen, 2008). 가치는 자기개념을 결정하는 핵심 인지적 도식이기도 하다(Hitlin & Piliavin, 2004). 핵심도식은 잘 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으나 시간에 따라 환경의 영향에 의해 변화 가능하고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태도도 변화한다(Bardi et al., 2008). 그러나 성형태도의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아직 없다.

성인 초기 여성은 외모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다(손은정, 2011). 남성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내 성인 초기 남녀대학생 외모에 대한 태도와 외모관리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외모가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외모의 유용성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외모주의는 여대생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대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도 훨씬 높게 지각했으며 성형에 대한 태도 역시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다(김윤,

2017). 이는 성인 초기 남녀 모두 외모의 유용성이나 도구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외모에 근거한 자존감 그리고 외모관리에 대한 압력은 여성이 더 높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고 사회적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외모를 위한 신체관리에 더 적극적일 수 있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태도의 종단적 관계를 연구하였다.

가치는 안정적이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성격5요인이론(McCrae & Costa, 2008)에서는 가치를 개인 성격의 한 측면으로 보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기본 특질에 비해 가치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적응 과정(characteristic adaptation)을 거쳐 변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태도는 성형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다. 가치와 태도는 모두 어떤 이슈에 대해 평가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치는 보다 추상적이고 태도는 구체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태도변화이론에 의하면 태도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를 이끌기도 한다(Bardi & Goodwin, 2011). 가치, 태도, 성격, 자기도식의 종단적 안정성 그리고 변인 간 방향성에 대한 리뷰 논문(Kandler, Zimmermann, & McAdams, 2014)에 의하면 이 변인들은 이론상으로는 위계적 관계에 있지만, 실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위계적이고 일방향적인 관계를 갖기 보다는 순환적인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태도의 관계 그리고 방향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물질적 풍요와 완벽한 외모는 미디어를 통해 끊임

임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제시되고 있고 (Dittmar, 2008) 이러한 부와 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하여 삶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물질주의 그리고 외모주의이다. 가치는 개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추상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으로, 가치에 따라 개인 삶의 중요도가 결정되고 행동이 동기화 되며, 가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질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은 돈과 물질이 삶에서 중요하고, 돈이나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행동에 동기화 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Bartky, 1990) 규격화된 신체적 미에 대한 압박이 심한 성인 초기 여성이 물질주의가 높을 경우 외모를 하나의 재화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외모주의가 높을 수 있다. 실제로 한 국내 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성인 초기 여성에게 서로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또한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일수록 자기대상화를 더 많이 하고(Teng et al., 2016), 자신의 몸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는 정도인 신체감시도 더 높아지는 등 (Barzoki, Tavakol, & Vahidnia, 2014) 외모에 더 민감해졌다.

외모주의(appearance orientation)는 외모가 자존감의 근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모를 갖는 것을 삶의 목표이자 가치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주의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다른 외적 가치보다 외모주의로 연결되기 쉽다.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에 의하면 남성($r = -.09$)보다 여성($r = -.24$)에게서 그 부적 관계가 더 강했고, 저자들은 그 이유를 여성들의 외모주의로 설명하였다(Dittmar, Bond, Hurst, & Kasser, 2014).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물질주의적인 목표

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으로서 전통적인 성역할과 일치하여 사회적으로 더 용인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차가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는 달리 여성의 경우 여성의 부와 미를 연합하여 반복 제시하는 미디어의 영향(Dittmar, 2008) 그리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전통에 의해 여성은 물질주의를 추구할 때 외모주의를 같이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한 실험연구에 의하면 물질주의가 점화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기 개념 중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이상적 신체와 자기 신체 간의 불일치를 더 크게 지각했다(Ashikali & Dittmar, 2012).

여성에게 부와 미가 서로 연합되어 학습된 가치라면,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외모주의가 물질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다. 물질, 외모, 인기 모두 외적 가치에 속하고 (Kasser, 2002), 가치 이론에 따르면 인생의 목표로 물질을 추구하는 개인은 외모, 인기도 함께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Grouzet et al., 2005).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수용태도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은 내적인 면보다는 돈, 이미지와 같은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도식이 발달하며(Felix & Garza, 2012), 자신의 몸을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정주원, 2006). 따라서 물질주의 증가는 이상적인 외모로 사회적 성공과 행복을 판단하는 외모주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노혜정, 김은이, 2011). 외모주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외모와 사회문화적으로 이상화된 외모를 비교하게 되며(이지현, 윤성준, 한희은, 2013) 계속되는 사회비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 평가(김완석, 유연재, 권

지현, 2009)와 낮은 신체자존감(Stice, Schupak-Neuberg, Shaw, & Stein, 1994)으로 이어진다. 낮은 신체자존감은 체중조절에 대한 과도한 노력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외모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신체를 변형하는 성형수술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Henderson-King & Brooks, 2009; Swami et al., 2008).

물질주의가 높은 여성은 성형수술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받고 싶은 수술의 종류도 더 많았으며 성형수술을 자신의 매력을 올리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보았다(Henderson-King & Brooks, 2009). 중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물질주의와 성형고려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자기대상화 그리고 성적 매력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증가하였고, 물질주의가 성형수술의도를 직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으며, 자기대상화와 성적매력 자본화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Sun, 2018). 이는 물질적인 열망에 의해 동기화 된 여성은 자신의 몸을 3인칭의 시점에서 대상화하여 바라보고 끊임없이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로 보는 경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일 수 있다(Bartky, 1990; Kasser & Ryan, 1996).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그리고 물질주의와 성형태도의 정적 관계는 앞서 소개된 연구에서 밝혀졌으나 아직 외모주의와 성형태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없다. 외모주의가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더 내재화하고, 매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내면화 정도가 심할수록 매력을 높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더 수용한다(Henderson-King & Brooks, 2009). 따라서 외모주의는 외모의 효용을 높게 평가하고 외모를 통한 성공과 행복을 획득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물

질주의보다 더 직접적으로 성형의도를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형수용태도는 개인이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정도이고 성형을 고려하는 동기에 따라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자존감을 높이거나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개인내적 이유, 사회 및 직업적 전망을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사회적 이유, 그리고 신체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로 얼마나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수술 고려 정도이다(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성형수용태도 중 사회적 이유와 수술 고려 정도가 가장 병리적인데 성형수용태도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이유와 수술 고려 정도는 일관되게 외모 자존감 및 현재 그리고 미래 신체적 매력과는 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던 것에 반해 개인내적 이유는 이 모든 변인들과 상관이 없었다(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이는 아마도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사회적 이유는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Carrion, Rabin, Weinberger-Litman, & Fogel, 2011) 이상화된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에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성형을 택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신체감시나 자기대상화와 연관이 깊은 물질주의 그리고 외모주의의 두 변인은 성형수용태도의 개인내적 이유보다 사회적 이유 그리고 수술 고려 정도와 더 상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내적 이유를 제외한 사회적 이유 및 수술 고려 정도로 성형수용태도의 하위 변인을 구성하였다.

연구모형

본 연구는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수용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매개모형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으로 검증하였다. Richins와 Dawson (1992)는 물질주의를 돈이나 물질의 소유로 성공을 판단하려는 성공판단 물질주의, 소유와 획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소유중심 물질주의, 물질의 획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정의하였는데(Richins & Dawson, 1992) 본 연구는 이 중 행복추구 물질주의로 물질주의를 측정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물질주의의 하위 영역 중 소유중심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가장 약하거나 없었고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부적 관계가 가장 강했다(Dittmar et al., 2014). 최근 세 하위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패턴이 다름에 대해 밝힌 연구에 의하면 소유중심 물질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의 어떤 영역과도 상관이 없었으며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안정적인 물질주의의 하위 구인이었다(Gornik-Durose, 2019). 성공판단 물질주의는 삶의 만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긍정정서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 변인과는 상관이 없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성인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성공판단 물질주의만 삶의 만족과 개인의 행복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유연재, 이성준, 2015). 한 청소년 연구에서는 행복추구 물질주의만이 낮은 자존감과 상관이 있었다(이은희, 김성숙, 2000).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의 하위개념 중 가장 병리적인 것으로 밝혀진 행복추구 물질주의에 초점을 두었다.

가치는 목표,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조직하고 예측하는 가장 상위 개념이며(Schwartz, 1992), 안정적이지만 성격 특질보다는 덜 안정적이고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모두 외적 가치에 속하고 여성에게는 연합하여 반복 학습되어지기 쉬운 가치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이며 서로 강화하는 관계일 것이라 가정했다. 성형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용태도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특정한 가설은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성형수용태도의 횡단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전 차수의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증가는 다음 차수의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행복추구 물질주의 증가가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를 예측할 때 이를 외모주의의 증가가 매개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외모주의 증가가 행복추구 물질주의 증가로 이어지는 관계와 성형수용태도 증가가 외모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가설에 대해 탐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물질과 외모 모두 외적 가치에 속함을 고려했을 때(Kasser, 2002) 외모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수록 특히 여성에게서는 물질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Dittmar, 2008). 둘째,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물질과 돈으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는 신념이기 때문에 성형수용태도 증가가 직접적으로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제시된 규범적 미에 자신을 맞추려는 방법으로 성형을 고려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그러한 미의 규범이 자기 도식 속에 더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모주의는 증가할 수 있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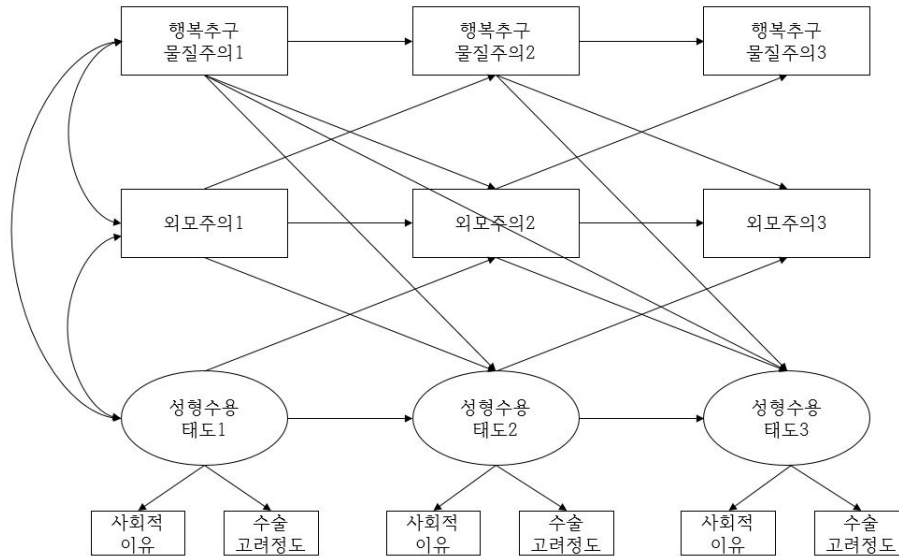


그림 1.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성형수용태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의 가치추구와 정신건강 관련 변인을 밝히기 위해 시행된 '성인 초기 여성의 생애 가치와 정신건강 연구'의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2015년 9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서울 및 수도권 7개 대학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참여 의사를 밝힌 18세에서 31세 성인 여성 571명을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2차 설문에 관한 안내는 추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차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후에 이메일로 진행하였으며 3, 4차 설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안내했다. 모든 차수에서 설문을 실시한 참여자들에게 5천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변인인 외모주의는 2차 설문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2, 3, 4차 설문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편의상 1, 2, 3차로 명명하였다. 최종 연구 대상은 성별을 불분명하게 표시한 1명과 1차 설문에는 참여했으나 2차 설문에는 참여하지 않은 118명, 총 119명을 제외한 452명의 여성이었다. 2차 시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25세 ($SD=2.22$)였고 학력은 대학교 재학 351명(77.7%), 대학교 졸업 58명(12.8%), 석사 재학 37명(8.2%), 석사 졸업 4명(0.9%), 기타 2명(0.4%)이었다. 3차 설문 참여자는 398명(2차 조사 기준 유지율: 88.1%), 4차 설문 참여자는 342명(75.7%)이었다.

연구도구

행복추구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 척도(Material Values Scale)를 한국어로

타당화한 유지혜와 설경옥(2018)의 한국어판 물질주의 가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성공판단 6문항,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중요한 소유중심 7문항, 그리고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행복한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복추구 5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가 가장 일관적이고 크게 나타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 5문항(예: 더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만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이며 높은 점수는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3차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2에서 .75 사이였다.

외모주의

외모주의는 Richins와 Dawson(1992)의 물질주의 가치척도의 물질관련 단어를 외모 및 외모관련 단어로 수정한 Felix와 Garza(2012)의 외모주의 척도(Appearance-Based Body Importance Scale)를 한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안은 심리학 전공 교수와 박사과정 재학생 3인 그리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중언어구사자 2인이 참여하였다. 총 18개 문항, 5점 리커트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예: 내 외모가 더 나아지면 내 삶도 더 나아질 것이다) 전체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외모주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3차 외모주의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83에서 .85 사이로 나타났다.

번안된 척도가 원저자가 제시한대로 3요인인지 검증하기 위해 표본 수가 가장 큰 1차 자료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는 .713 CFI는 .753 그리고 RMSEA가 .110, SRMR가 .080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는 아니었다(Hu & Bentler, 1999). 그러나 성공판단적 외모주의와 획득중심적 외모주의 간의 상관은 0.57, 획득중심 외모주의와 행복추구 외모주의 간의 상관은 0.42, 그리고 성공판단적 외모주의와 행복추구적 외모주의 간의 상관은 0.64로 모두 유의했으며, Kline(2011)이 제안한 0.9보다 모두 작기 때문에 세 개의 요인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척도를 포함한 내적 일치도도 전체변인과 하위변인 별로 모두 0.5 이상으로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수가 아닌 총점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성형수용태도

성형수용태도는 Henderson-King과 Henderson-King(2005)이 개발한 성형수용태도(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신체적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성형수술을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총 15개 문항 7점 리커트식(1 = 전혀 동의 안 함, 7 = 항상 동의함) 척도로 개인의 만족이나 외모와 관련된 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성형을 수용하는 개인내적 이유 5문항, 사회생활 및 경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형을 수용하는 사회적 이유 5문항 그리고 개인이 실제로 성형을 할 의도를 측정하는 수술 고려 정도 5문항의 세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의 번역은 외모주의 척도 번역과 같은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 이유 5문항(예: 만약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면 성형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과 수술 고려 정도 5문항(나는

때때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의 두 하위 영역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형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3차 사회적 이유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87와 .89, 그리고 수술 고려 정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2에서 .9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Mplus 7을 사용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분석을 하였다. 이 모형은 참여자들이 시간이 지남에도 척도의 문항을 동일하게 해석하였는지 보는 측정 동일성, $t-1$ 시점의 변인이 t 시점의 변인에게 준 영향과 t 시점의 변인이 $t-1$ 시점의 변인에게 준 영향력이 같은지 회귀계수를 제약하여 검증하는 경로 동일성, 그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차례대로 성립되어야 한다(홍세희, 2000). 각 동일성 조건을 적용할 때마다 내재된 경쟁모형과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결정한다. 모형들을 비교할 때는 χ^2 적합도와 차이검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하지만 χ^2 검정은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 Lewis Index), 그리고 절대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한다(홍세희, 2000).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이며 값이 .01 이상 줄었을 때 모형 적합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RMSEA는 .08 이하이면 적절한 적합도이고 .015 이상 커졌을 때 모형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Chen, 2007).

종단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IML)이 사용되

었다(Kline, 2011). 종단연구는 동일한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변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하는 반복 측정 설계이기 때문에 매회 발생하는 오차 역시 시점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 오차 간 상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오차 간의 상관을 허용하였다(Pitts, West, & Tein, 1996).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는 절댓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이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상관분석 결과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중간 크기의 정적 상관($r=.36\sim.47$)을 외모주의는 성형수용태도와 중간에서 강한 크기의 정적 상관($r=.46\sim.58$)을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성형수용태도는 작거나 중간크기의 유의한 정적 상관($r=.26\sim.40$)을 보였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총 13개의 모형이 설정되었고 이 중 모형 2는 측정 동일성, 모형 3부터 모형 10까지는 경로 동일성, 그리고 모형 11부터 모형 13까지는 오차 공분산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각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모형 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

모형 2: 모형 1에서 성형수용태도의 요인적재치

표 1. 주요 변수들의 측정시점에 따른 상관 및 기술통계

		가. 행복추구 물질주의			나. 외모주의			다. 성형수용태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가.	1차	1								
	2차	.67**	1							
	3차	.64**	.70**	1						
나.	1차	.46**	.43**	.43**	1					
	2차	.40**	.45**	.40**	.79**	1				
	3차	.36**	.45**	.47**	.75**	.79**	1			
다.	1차	.31**	.26**	.30**	.55**	.46**	.47**	1		
	2차	.27**	.29**	.32**	.55**	.54**	.51**	.82**	1	
	3차	.27**	.30**	.40**	.53**	.53**	.58**	.74**	.83**	1
평균		3.00	3.07	3.08	3.15	3.13	3.15	3.88	3.85	3.71
표준편차		.69	.74	.73	.52	.53	.53	1.50	1.46	1.42
왜도		-.03	-.21	.00	-.04	-.11	-.21	-.19	-.27	-.30
첨도		-.09	.02	.22	.39	.46	.04	-.66	-.62	-.66

** $p < .01$.

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

모형 3: 모형 2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

모형 4: 모형 3에서 외모주의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

모형 5: 모형 4에서 성형수용태도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성 제약.

모형 6: 모형 5에서 외모주의에 대한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모형 7: 모형 6에서 성형수용태도에 대한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모형 8: 모형 7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에 대한 외모주의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모형 9: 모형 8에서 성형수용태도에 대한 외모주

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모형 10: 모형 9에서 외모주의에 대한 성형수용태도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

모형 11: 모형 10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간의 오차 공분산에 동일성 제약.

모형 12: 모형 11에서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

모형 13: 모형 12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성형수용태도 간의 오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 및 모형 간 χ^2 와 df 의 차이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기저모형인 모형 1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chi^2(28)=95.195$, $p < .001$, TLI=.961, CFI=.983, RMSEA=.073, 90%

표 2. 모형별 적합도 검정과 차이검정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신뢰구간 90%)	$\Delta\chi^2$	Δdf
모형1	95.20	28	.961	.983	.073 (.057-.089)	-	-
모형2	104.56	30	.960	.981	.074 (.059-.090)	9.37**	2
모형3	104.60	31	.961	.982	.072 (.057-.088)	0.04	1
모형4	107.08	32	.962	.981	.072 (.057-.087)	2.47	1
모형5	107.08	33	.964	.981	.070 (.056-.086)	0.01	1
모형6	108.66	34	.964	.981	.070 (.056-.085)	1.58	1
모형7	110.88	35	.965	.981	.069 (.055-.084)	2.22	1
모형8	111.03	36	.966	.981	.068 (.054-.082)	0.16	1
모형9	111.23	37	.967	.981	.067 (.053-.081)	0.20	1
모형10	114.31	38	.967	.981	.067 (.053-.081)	3.08	1
모형11	114.36	39	.969	.981	.065 (.052-.079)	0.05	1
모형12	114.75	40	.970	.981	.064 (.051-.078)	0.38	1
모형13	116.35	41	.970	.981	.064 (.050-.078)	1.60	1

** $p < .01$.

신뢰구간 [.057-.089])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모든 비교 과정에서 CFI는 .01 이상으로 줄지 않았으며, RMSEA도 .015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측정 동일성은 잠재변수가 아닌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를 제외하고 성형수용태도에 관해서만 이루어졌다. 모형 1과 모형 2 간의 $\Delta\chi^2$ 검정에서 모형 간의 차이($\Delta\chi^2=9.37$, $\Delta df=2$, $p < .01$)로 유의하게 나왔으나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검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CFI와 RMSEA 값이 유의하게 떨어지지 않았고 TLI를 포함하여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와, 모형 2를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시점에 따라 잠재변수의 개념이 동일하게 해석되었음을 의미한다.

경로 동일성은 모형 3~모형 10으로 모형 간 차이로 검증되었다. 모형 2와 3의 차이 검증 결과인 $\Delta\chi^2(df=1)=0.04$ 는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 3과 모형 4는 $\Delta\chi^2(df=1)=2.47$, 모형 4와 모형 5는 $\Delta\chi^2(df=1)=0.01$, 모형 5와 모형 6은 $\Delta\chi^2(df=1)=1.58$, 모형 6과 모형 7은 $\Delta\chi^2(df=1)=2.22$, 모형 7과 모형 8은 $\Delta\chi^2(df=1)=0.16$, 모형 8과 모형 9는 $\Delta\chi^2(df=1)=0.20$, 모형 9와 모형 10은 $\Delta\chi^2(df=1)=3.08$ 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적합도 및 적합도 차이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모형 10을 채택하였다. 이는 이전 시점의 변수가 현시점에 주는 영향력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오차 공분산 동일성은 모형 11~모형 13 모형 10과 모형 11 간에는 $\Delta\chi^2(df=1)=0.05$, 모형 11와

모형 12 간에는 $\Delta\chi^2(df=1)=0.38$, 모형 12과 모형 13 간에는 $\Delta\chi^2(df=1)=1.60$ 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른 적합도 및 적합도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아 최종 모형인 모형 13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변인 간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최종 모형으로 채택된 모형 13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으며($\chi^2(41)=116.35, p<.001, TLI=.970, CFI=.981, RMSEA=.064, 90\%$ 신뢰구간 [.050- .078]) 그림 2에서 유의한 경로계수를 표시했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수용태도 각각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2차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았으며($\beta=.605, p<.001$), 2차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3차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다($\beta=.646, p<.001$). 외모주의와($\beta=.711, p<.001, \beta=.718, p<.001$) 성형수용태도($\beta=.777, p<.001, \beta=.798, p<.001$)도 이처럼 이전 시점의 수준

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예상했던대로 1차에서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2차 외모주의가 높았으며($\beta=.078, p<.01$), 2차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을수록 3차 외모주의가 높게 나타났다($\beta=.083, p<.01$).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 외모주의가 높으면 2차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았으며($\beta=.129, p<.001$), 2차 외모주의가 높으면 3차 행복추구 물질주의도 높게 나타났다($\beta=.130, p<.001$).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 간의 관계 역시 1차 외모주의가 높으면 2차 성형수용태도가 높았으며($\beta=.109, p<.001$), 2차 외모주의가 높으면 3차 성형수용태도도 높게 나타났다($\beta=.114, p<.001$).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1차 성형수용태도가 높으면 2차 외모주의가 높았으며($\beta=.062, p<.01$), 2차 성형수용태도가 높으면 3차 외모주의도 높았다($\beta=.061,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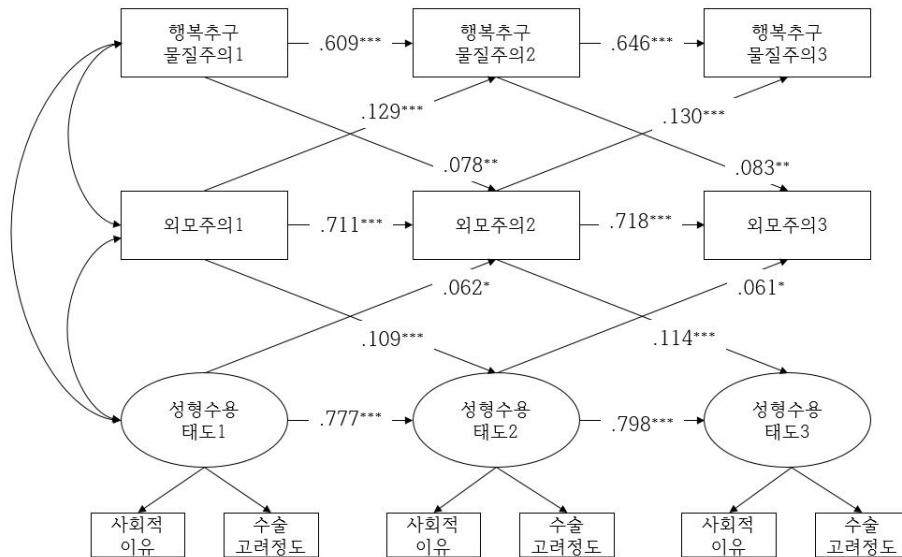


그림 2.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성형수용태도에 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의 표준화 계수
* $p<.05$; ** $p<.01$; *** $p<.001$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성형수용태도의 관계는 예상과 달리 1차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높은 경우 2차 성형수용태도는 정적인 관련은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beta=.026, p=.300$). 2차 행복추구 물질주의 역시 3차 성형수용태도로 정적인 관련은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beta=.028, p=.302$). 또한 1차 행복추구 물질주의에서 3차 성형수용태도로 가는 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eta=-.021, p=.543$).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1차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3차 성형수용태도의 관계에서 2차 외모주의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부스트래핑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했다(Shrout & Bolger, 2002). 1차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3차 성형수용태도를 예측하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기에 이 직접경로를 0으로 고정한 완전매개모형(수정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최종모형(모형13)에 대해 χ^2 차이검정을 포함한 적합도 비교를 통해 더 적절한 모형을 선택했다. 그 결과 부분매개모형($\chi^2=116.35, df=41, TLI=.970, CFI=.981, RMSEA=.064$, 신뢰구간 90% {.050-.078})과 완전매개모형($\chi^2=116.70, df=42, TLI=.971, CFI=.981, RMSEA=.063$, 신뢰구간 90% {.049-.076}) 모두 적합도 검정을 통과했으며, 두 모형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Delta\chi^2=.035, \Delta df=1, p=.552$). 또한 두 모형 모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수정모형)을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선택하여 부스트래핑으로 간접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간접효과($\beta=.009, p<.05$)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5000번 반복추출, 95%신뢰구간 [.001-.016]).

이는 즉, 1차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2차 외모주의를 매개하여 3차 성형수용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간의 관계, 그리고 물질과 외모가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이를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성형을 수용하는 태도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 그리고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가 서로를 양방향으로 예측하고,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외모주의를 매개로 성형수용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외모주의 그리고 성형수용태도는 연구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의 각 시점간 상관은 .6-.7로 높은 편이나 상관값 1과는 거리가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그리고 외모주의와 같은 삶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있으나 성인기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Schwartz, 1997). 그러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성인기의 가치는 성격특질 보다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서로 비슷한 가치끼리 연합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Bardi, Lee, Hofmann-Towfigh, & Soutar, 2009). 구체적으로 Bardi 등 (2009)의 연구에서 외적 가치인 성취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면 권력에 대한 가치도 함께 증가하였고, 반대로 내적 가치인 박애나 보편주의 가치는 감소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Bardi 등(2009)의 연구와 같이 행복추구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상호 간 연동되어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행복추구 물질주의의 증가는 외모주의의 증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물질주의가 높은 개인이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완벽한 신체상을 내면화하는 외모 중심 가치관의 증가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Sun, 201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역방향으로 외모주의 증가가 행복추구 물질주의 증가를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아직 없지만, Bardi 등(2009)의 가치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에서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같이 서로 비슷한 가치는 함께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된 것을 고려했을 때 서로 비슷한 두 가치가 양방향적으로 연동되어 증가된 것일 수 있다.

외모주의 증가는 성형수용태도 증가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외모주의와 성형수용태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으나 외모주의가 외모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규격화된 외모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임을 고려했을 때 외모주의 가치를 추구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모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쉬울 것이다.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는 외모주의 증가를 정적으로 예측하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이상적인 미를 내면화하는 것이 외모관리행동을 예측함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김윤, 황선진, 2008; 김수현, 배현숙, 2014). 본 연구에서는 성형수용태도 중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형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사회 규범적 미의 기준에 맞게 고치려 하는 동기인 사회적 이유와 얼마나 진지하게 성형수술을 고려하는지의 수술 고려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이렇게 성형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 될수록 규범화된 외모 중심의 가치관이 더 강화될 수 있다.

행복추구 물질주의 증가와 성형수용태도 증가는 정적인 관련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외모주의를 통해서만 성형수용태도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이는 외모주의와 성형수용 태도는 둘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물질주의는 성형수용 태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그동안 물질주의와 성형수용태도의 직접적 관계를 밝힌 연구도 있었지만(예: Sun, 2018) 모두 횡단 연구였다. Sun(2018)의 연구에서는 중국 여대생의 높은 물질주의가 직접적으로 성형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예측하기도 했고, 성적매력의 자본화나 자기대상화를 매개로 성형수용태도를 예측하기도 했다. 돈이 접화된 여성의 경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경향성인 외모감시가 증가하였다(Teng et al., 2016). 이와 같이 실험연구나 횡단연구에서 물질주의와 성형과 같은 외모관리 행동에 동시에 답할 때 물질의 중요성이 여성의 외모의 중요성을 점화시켰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과 돈이 필요하다고 믿는 여성이 꼭 성형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모를 가져서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외모 말고도 물질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 연구를 통해 행복추구 물질주의가 초기 성인기 여성의 성형수용태도를 간접적으로 예측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않음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는

이루어졌으나 정부중심 초고속 경제발전은 물질주의 가치 확산도 함께 가져왔다. 본 연구는 성인기 초기 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모주의라는 다른 외적 가치와 연합하게 되고, 물질주의와 외모주의의 연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형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성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기 역시 물질주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소유와 획득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성인 초기 여성이 이를 얻는 수단으로 외모를 중시하는 외모주의가 발달되고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강화하는 가치임을 발견하였다. 이는 물질주의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외적 가치와 연합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물질이나 외모에 대한 가치는 국내 성인 초기 여성의 외모에 대한 압박과 불만족, 과도한 체중감량 노력이나 이상섭식행동, 그리고 성형을 고려하는 근본적 심리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인일 수 있다. 성인 초기는 전공, 직업, 결혼, 출산과 같이 삶의 중요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삶의 가치가 뚜렷해지기도 하고 주요한 발달과업 달성 및 이업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Schuster, Pinkowski, & Fischer, 2019). 이는 성인 초기에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가치추구로의 전환할 기회가 더 많을 수 있음도 의미한다. 임상장면에서 자신의 신체에 불만을 갖고 낮은 자존감, 사회 불안, 섭식장애 등을 겪고 있는 내담자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내담자에게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는 부와 미의 결합을 무비판적으로 내재화하는 결과가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대한 심리교육

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비록 성인 초기에 대학입학, 전공 선택, 변경, 진로 결정, 졸업 등 삶의 가치를 재고할 만한 생애전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본 연구의 6개월의 측정 간격 그리고 1년 6개월의 총 연구 기간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짧은 기간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을 확장하여 졸업, 취업, 결혼, 출산 등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생애전환 사건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질주의와 외모주의는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물질주의 발달단계에 대한 메타 코호트 분석 논문에 의하면 전체 물질주의는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가장 높고 성인 중기까지 감소하다가 노년기에 다시 상승한다. 그러나 행복추구 물질주의는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Jaspers & Pieters, 2016). 비록 행복추구 물질주의 경우 발달단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으나 전체적인 물질주의가 중년기까지 감소함을 고려할 때 외모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성형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형에 대한 태도는 성인 초기와는 달리 중년이나 노년에는 외모주의보다 노화에 혹은 미래에 대한 태도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다(서은희, 최지연, 정영숙, 2018).

셋째, 본 연구는 성형의 병리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성형수술을 통한 외모에 대한 만족감 증가나 자아상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개인내적 이유도 성형 고려 동기에 포함된다(Henderson-King & Henderson-King, 2005). 특히 연령대에 따라 개인내적 이유가 보다 더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년이나 노년의 경우 사회적 규범에 맞는 외모를 획득하기보다는 개인내적 만족을 위해

성형을 생각할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성형수용태도의 차이에 대해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수현, 배현숙 (2014). 매스미디어를 통한 사회문화적 외모 태도가 여성의 미용성형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0(2), 253-261.
- 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신체가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외모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0(3), 581-600.
- 김 윤 (2017). 성별과 외모태도에 따른 외모유용성, 신체만족 및 신체관리의도에 관한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7(3), 573-583.
- 김 윤, 황선진 (2008).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외모가 성인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58(10), 112-122.
- 김현숙 (2014). 외모의 노력귀인과 성형혜택의 정당성지각이 성형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중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4), 153-163.
- 노혜정, 김은이 (2011). 텔레비전 드라마 노출이 남자 청소년의 외모만족과 자아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5), 340-365.
- 서은희, 최지연, 정영숙 (2018). 중년 여성의 노화 불안과 미래 시간 조망 및 행복의 관계. **한국상담심리학회지: 발달**, 31(2), 21-40.
- 설경옥, 박선영, 박지은 (2016). 성인기 초기 여성의 물질주의, 외모주의와 이상섭식행동의 관계에서 사회비교와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875-896.
- 손은정 (2011). 여대생의 성형수술 경험 및 성형수술 만족 여부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1), 23-42.
- 손은정 (2012). 성인기 여성의 성형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생애주기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49-173.
- 유연재, 이성준 (2015). 마음챙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1), 91-110.
- 유지혜, 설경옥 (2018). 한국판 물질주의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3), 385-410.
- 이은희, 김성숙 (2000). 인천지역 청소년소비자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관련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1(2), 43-59.
- 이지현, 윤성준, 한희은 (2013). 라이프스타일이 미용성형수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산업연구**, 13(4), 85-96.
- 정주원 (2006). 몸의 소비문화적 의미와 현상에 대한 고찰. **한국소비문화학회**, 9(1), 83-101.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shikali, E. M., & Dittmar, H. (2012). The

- effect of priming materialism on womens responses to thin-ideal media.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1(4), 514-533.
- Bartky, S. L. (1990). Toward a phenomenology of feminist consciousness.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Vol. 1, pp. 11-21). New York, US: Routledge.
- Bardi, A., Calogero, R. M., & Mullen, B. (2008). A new archival approach to the study of values and value-behavior relations: Validation of the value lexic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3), 483-497.
- Bardi, A., & Goodwin, R. (2011). The dual route to value change: Individual processes and cultural moderato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 271-287.
- Bardi, A., Lee, J. A., Hofmann-Towfigh, N., & Soutar, G. (2009). The structure of intraindividual valu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13-929.
- Barzoki, M. H., Tavakol, M., & Vahidnia, A. (2014). Effects of sexual objectification on conspicuous consumption and materialism.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11(2), 153-162.
- Carrion, C., Rabin, L. A., Weinberger-Litman, S. L., & Fogel, J. (2011). Body dissatisfaction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ordered eating and cosmetic surgery acceptance among Colomb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gnitive and Behavioral Psychotherapies*, 11(2), 143-156.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ittmar, H. (2008). *Consumer culture, identity and well-being: The search for the 'good life' and the 'body perfect'*. London: Psychology Press.
- Dittmar, H., Bond, R., Hurst, M., & Kasser, T.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personal well-be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7(5), 879-924.
- Felix, R., & Garza, M. R. (2012). Rethinking Worldly Posses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body appearance for female consumers in an emerging economy. *Psychology & Marketing*, 29(12), 980-994.
-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Fernández-Dols, J. M., Kim, Y., Lau, S., ... Sheldon, K. M. (2005). The structure of goal contents across 15 cultures.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00-816.
- Henderson-King, D., & Brooks, K. D. (2009). Materialism, sociocultural appearance messages, and paternal attitudes predict college women's attitudes about cosmetic surger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3, 133-142.
- Henderson-King, D., & Henderson-King, E. (2005).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Body Image*, 2(2), 137-149.
- Hitlin, S., & Piliavin, J. A. (2004). Values: Reviving a dormant 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359-393.
- Hu, L., & Bentler, B.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ISAPS). (2015). ISAPS International survey on aesthetic/cosmetic: Procedures performed in 2014.
- Jaspers, E. D. T., & Pieters, R. G. M. (2016). Materialism across the life span: An age period-cohort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1, 451-473.
- Kandler, C., Zimmermann, J., & McAdams, D. P. (2014). Core and surface characteristics for the description and theory of personality differences and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 231-243.
- Kasser, T. (2002). *The high price of materialism*. Cambridge, MA: MIT Press.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Society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2(3), 280-28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cCrae, R. R., & Costa, P. T. (2008). Empirical and Theoretical Statu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Traits. *The SAGE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Assessment: Personality* (Vol 1, pp. 274-294). Sage.
- Pitts, S. C., West, S. G., & Tein, J. Y. (1996). Longitudinal measurement models in evaluation research: Examining stability and change.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9(4), 333-350.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Schuster, C., Pinkowski, L., & Fischer, D. (2019). Intra-individual value change in adulthoo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ssessing Schwartz's

- value orientations. *Zeitschrift für Psychologie*, 227(1), 42-52.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y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5, pp. 1-65).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1997). Values and culture.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 Carr (Eds.), *Motivation and culture* (pp. 69-84). New York, US: Routledge.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ice, E., Schupak-Neuberg, E., Shaw, H., E.,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4), 836-840.
- Sun, Q. (2018). Materialism, self-objectification, and capitalization of sexual attractiveness increase young Chinese women's willingness to consider cosmetic surgery. *Frontiers in Psychology*, 9, 2002.
- Swami, V., Arteché, A., Chamorro-Premuzic, T., Furnham, A., Stieger, S., Haubner, T. & Voracek, M. (2008). Looking good: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having cosmetic surgery. *European Journal of Plastic Surgery*, 30(5), 211-218.
- Teng, F., Poon, K. T., Zhang, H., Chen, Z., Yang, Y., & Wang, X. (2016). Situational cuing of materialism triggers self-objectification among women (but not men):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ncept clar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7, 220-228.

A Longitudinal Analysis of Young Adult Women's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s Cosmetic Surgery

Heonji Kim Ji-hyeon Lee Hae-joong Kwon Kyoung Ok Seol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nd attitude towards cosmetic surgery among 452 young adult South Korean women. We hypothesized that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nd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would be consistent over time. We also hypothesized tha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ism and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would be mediated by an increase in appearance orientation. We completed the survey three times at 6-month intervals. Using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e found that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nd attitude towards cosmetic surgery were consistent across time. We also found mutual associations of all three factors. An increase of materialism did not significantly predict an increase of attitude towards cosmetic surgery. Yet, but an increase of appearance orientation did mediate the link between increases in materialism and attitudes toward cosmetic surger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highly materialistic culture of South Korea could explain the popularity of cosmetic surgery among young adult women.

Keywords: materialism, appearance orientation, attitude toward cosmetic surgery, young adult women